제 1 교시

2022학년도 수능대비 Replay 문제지 1회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대비 Replay 문제지 1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 우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이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가벼운 날개 밑에 머-르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낮더라.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애(斷崖)*의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오늘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곰팽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미운 너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고나.

- 김기림, 「추억」 -

* 단애: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겟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다)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 넣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둣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중략)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로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점층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④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여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⑤ 역설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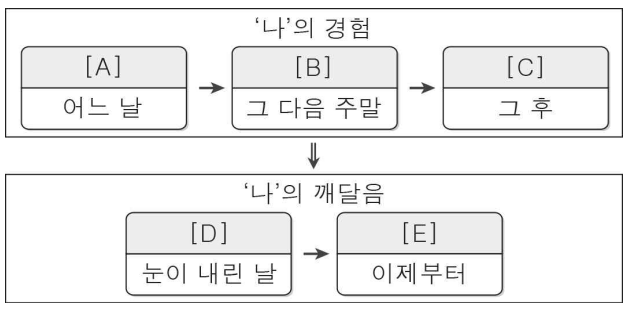
〈보 기〉

(가)와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모와 이에 대한 정서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화자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 단절감을 드러내는 반면, (나)에서는 성장하면서 넓은 세상에서 경험이 확장되었던 화자가 모성(母性)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① (가)의 '그날', '오늘'과 (나)의 '어려서', '조금 자라서', '소년 시절'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군.
② (가)의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다는 것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절감을, (나)의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에서 넓은 세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알 수 있군.
③ (가)의 '제비 같은 이야기'를 '바다 건너'로 날렸던 모습과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는 모습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군.
④ (나)에서 '칸델라불 밑', '전등불 밑', '대처'는 화자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장소임을 알 수 있군.
⑤ (나)의 '젊은 어머니'와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는 것에서 모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군.

3.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A]에서 글쓴이는 나무에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연민을 느끼고 있다.
② [B]에서 글쓴이는 장도리를 사용해 나무의 못을 빼고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다.
③ [C]에서 글쓴이는 언제나 제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그늘 밑에서 나무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④ [D]에서 글쓴이는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⑤ [E]에서 글쓴이는 나무를 본받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나'가 견문을 넓히는 공간이다.
② ㉡은 '나'가 방황하며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나'가 부끄러움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④ ㉡은 ㉠과 달리 '나'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나'가 시련을 극복하는 공간이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학 작품에서 동물 상징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보여 주는 전통은 비교적 오래되었다. 운문과 산문, 시대와 공간을 넘어 우의적 표현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개 작품의 소재로서의 동물 상징은 관찰을 통해 얻어진 관습적 의미가 중심을 이룬다. 다만 이러한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에서부터 신비롭고 관념적으로 규정되는 것까지 폭넓은 양상을 보인다.

동물 상징이 주로 익숙한 정보를 통해 형성되기는 하지만 작품의 주제가 곧바로 등장 소재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물론 일부 작품에서는 등장하는 소재의 속성이 반복되거나 변주되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작품에서는 관습적 속성의 허위, 이를 넘어 존재하는 본성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보여 주기도 한다.

한국 고전 시가에서 까마귀는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동물 상징이다. 까마귀의 상징은 빛깔, 내면, 습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A]
가마귀 싸호는 골에 **백로(白鷺)** ㅣ야 가지 마라
셩낸 가마귀 흰빗출 새올셰라
청강(淸江)에 잇것 시슨 몸을 더러일가 ᄒᆞ노라

– 작자 미상

이 작품은 까마귀의 검은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관습적으로 검은색은 악한 것이며 이에 반해 하얀색은 선한 것이라는 이분법에서 까마귀의 '골'은 싸움터이며, 백로의 '청강'은 순수한 공간임을 드러낸다. 흑백의 정해진 틀 안에서 검은 까마귀는 판단이 불필요한 부정적 상징으로 단정된다.

[B]
가마귀 검다 ᄒᆞ고 **백로(白鷺)** ㅣ야 웃지 마라
것치 거믄들 속조차 거믈소냐
아마도 것 희고 속 검을슨 너뿐인가 ᄒᆞ노라

– 작자 미상

이 작품은 검은 까마귀를 비웃는 하얀 백로에 초점을 둔다. 겉과 속, 외양과 심성, 가문과 개인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백로의 비웃음을 통해 드러낸다. 이처럼 화자의 냉소적 관찰을 통해 겉만 보고 남을 성급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는 화자의 의도가 검은 까마귀와 하얀 백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C]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흉(凶)타 ᄒᆞ돗던고
반포보은(反哺報恩)이 긔 아니 아름다온가
ᄉᆞ롬이 져 ᄉᆡ만 못ᄒᆞ물 못닉 슬허ᄒᆞ노라

– 박효관

이 작품은 까마귀의 습성을 관찰한 결과를 인간사에 적용한 경우이다.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보고 까마귀를 효의 상징으로 드높이고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은' 까마귀가 가지는 부정성을 극복하고 까마귀의 '속'에 대한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까마귀는 또 다른 상징을 갖기도 하며(「가마귀 가마귀롤 좃ᄎᆞ ~」), 이처럼 다양한 양상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백사장 홍료변에 ~」).

[D]
ⓐ가마귀 ⓑ가마귀롤 좃ᄎᆞ 들거고나 뒷동산(東山)에
느러진 고양남게 휘 드느니* ⓒ가마귀로다
ᄉᆡ는 날 뭇 ⓓ가마귀 ᄒᆞᆫ듸 ᄂᆞ려 뒤덤벙* 덤벙 두루
덥져겨* ᄇᆡᆺ흐니 아모 그 ⓔ가마귄 줄 몰닉라

– 작자 미상

백사장(白沙場) 홍료변(紅蓼邊)에 구버기ᄂᆞᆫ* ㉠백로(白鷺)들아 구복(口腹)을 못 메워 뎌다지 굽니ᄂᆞᆫ다
일신(一身)이 한가(閑暇)홀션졍 술져 무슴 ᄒᆞ리오

– 작자 미상

*휘 드느니: 휘 날아드니.
*뒤덤벙: 들뜬 행동으로 아무 데나 간섭을 하며 서두름.
*덥져겨: 덥적여.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자꾸 참견하여.
*구버기ᄂᆞᆫ: 꾸벅이는.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반복하는.

5. [A]~[C]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가마귀'는 부정적인 관습적 의미 안에 있으며, '백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② [B]에서 '백로'는 순결의 관습적 의미를 벗어나고 있으며, '가마귀'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③ [C]에서 '가마귀'는 관찰을 통한 속성에 기대어 흉하다는 관습적 의미를 벗어나고 있군.
④ [A]의 '가마귀'와 [B]의 '가마귀'의 빛깔은 모두 시각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군.
⑤ [B]의 '가마귀'와 [C]의 '가마귀'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군.

6. <보기>를 바탕으로 [D]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설시조는 계열적, 계기적 병렬을 통해 장형화를 형성하며, 이것은 화자의 시선 및 태도, 웃음의 유발 등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병렬은 의미 지향이 동일한 둘 이상의 통사 형식이 나란히 놓인 것으로, 계열적 병렬은 비슷한 수준의 단어, 의미, 통사 구조가 반복되거나 나열되면서 시적 전개에서 동일한 수준의 통사와 의미를 유지하는 것을, 계기적 병렬은 단어, 의미, 통사 구조가 반복되거나 나열되어 연쇄성이나 단계성을 지닌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병렬 방식은 웃음의 미학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

① 계기적 병렬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두어 풍자하고 있다.
② 계기적 병렬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연민하고 있다.
③ 계열적 병렬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두어 풍자하고 있다.
④ 계열적 병렬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연민하고 있다.
⑤ 계기적·계열적 병렬을 합쳐 대상과의 거리를 두어 풍자하고 있다.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의 행동을 따라 하다 ⓒ를 발견하였다.
② ⓓ를 통해 ⓐ와 ⓑ의 거리가 좁혀졌다.
③ ⓑ는 ⓒ와 함께 ⓓ에 속하였다.
④ ⓒ와 ⓓ는 행동을 같이하였다.
⑤ ⓔ는 ⓓ와 행동을 달리하였다.

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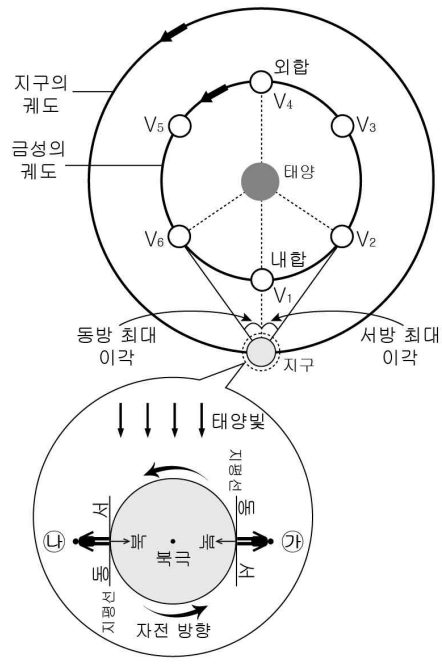
① 행위 묘사를 통해 욕망하는 존재로 상징하여 비판하고 있다.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절제하는 존재로 상징하여 흠모하고 있다.
③ 내면 묘사를 통해 갈등하는 존재로 상징하여 연민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존재로 그려 내어 선망하고 있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역동적인 존재로 그려 내어 경외하고 있다.

〔9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성의 다른 이름인 '샛별'은 새벽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성에 ⓐ붙인 이름이다. 실제로 금성은 하루 종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관련이 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일 년에 한 바퀴 공전한다. 이로 인해 지구상의 관측자가 하늘의 천체를 볼 때, 관측 시기에 따라 천체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관측자에게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할 때 천체가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이거나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겉보기 운동'이라 한다.



[그림]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마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사물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그림]의 ㉮, ㉯에서처럼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할 때, 관측자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 이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의 방향이므로 하늘의 천체는 상대적으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결국 겉보기 운동은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도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천체인 내행성, 지구, 태양의 위치 관계를 내행성 중 하나인 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태양, 금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를 '합'이라고 하는데, 지구-금성-태양의 순서로 위치할 때를 '내합', 지구-태양-금성의 순서로 위치할 때를 '외합'이라고 한다. 또한 지구상의 관측자가 태양과 행성을 바라보았을 때,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이각'이라고 한다. 즉, 관측자가 보았을 때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각거리*로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각'은 다시 '동방 이각'과 '서방 이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그림]의 V_5, V_6에서처럼 금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경우와 V_2, V_3에서처럼 서쪽에 있는 경우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금성이 V_6과 V_2에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때의 이각을 각각 '동방 최대 이각'과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한다.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 상대적 위치 관계 등을 바탕으로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과 시간, 위상과 크기, 밝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은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그림]에서 금성이 외합인 V_4에서 내합인 V_1사이인 동방 이각에 위치하고, 관측자가 ㉮에 서 있다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관측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관측자의 위치가 ㉯로 변하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고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태양이 진 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반대로 금성이 서방 이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관측자는 ㉯가 아닌 ㉮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태양과 금성, 지구의 위치 관계가 내합과 외합일 때에는 금성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되기 어렵다. 따라서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 또는 서방 최대 이각의 안쪽에 위치할 때만 관측 가능하고, 합의 위치에서는 관측이 어려운 것이다. 한편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은 금성의 이각에 따라 달라진다. 이각이 클수록 태양과 금성의 각거리는 커지므로 금성을 더 오래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성은 최대 이각에 위치할수록 오래 관측되고, 합에 위치할수록 짧게 관측된다. 이런 이유로 금성은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좌, 우 일정한 이각 내에서만 관측된다.

또한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는 금성의 위치, 지구와 금성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금성의 위상은 금성이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보이는 모양으로,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태양빛을 받는 면이 지구를 향하는 정도에 따라 보이는 형태가 다르다. 금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보이는 크기가 줄어들지만 태양빛을 받는 면의 전체를 볼 수 있어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반면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커지지만 태양빛을 받는 면의 일부분만 볼 수 있으므로 초승달 또는 그믐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그리고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금성의 밝기는 보이는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합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다. 일정 위치까지는 보이는 면이 줄어드는 효과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여 더 밝게 보인다. 그러다가 일정 위치를 지나 내합의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보다 보이는 면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밝기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금성의 밝기는 내합을 지나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더 밝아지다가 서방 최대 이각에 가까워질수록 밝기가 줄어들게 된다.

* 각거리: 관측자로부터 두 천체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로 나타내는 천체 간 거리.

9.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_____㉮_____ 분에게 추천합니다.

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삶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② 학문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다룬 글을 읽으려는
③ 과학적 지식을 쌓기 위해 현상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다룬 글을 읽으려는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글을 읽으려는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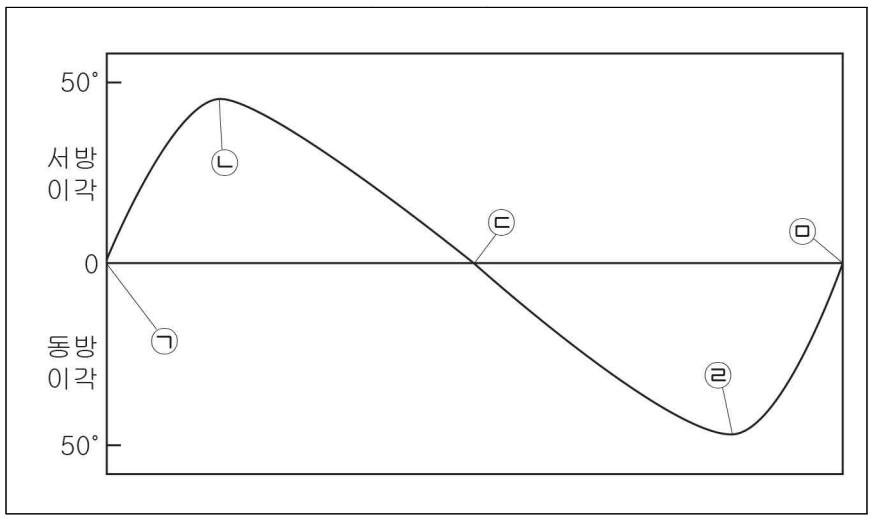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측자가 관측한 천체의 움직임은 천체의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다.
② 겉보기 운동은 천체를 중심으로 관측자의 위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③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천체의 위치는 관측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④ 겉보기 운동에서 보이는 천체 움직임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이다.
⑤ 북반구 중위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는 관측자에게 서쪽은 관측자의 왼쪽 방향에 해당한다.

11. 밑줄 친 단어 중,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운동을 해서 다리에 힘을 붙였다.
② 그는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붙여 왔다.
③ 아이와 정을 붙이고 나니 떨어지기가 싫다.
④ 아이들에게 희망을 붙이고 사는 것이 큰 낙이다.
⑤ 그는 자기 소설에 어떤 제목을 붙일까 고민 중이다.

※ 다음은 금성의 이각을 일정 기간 지구에서 관측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그래프를 바탕으로 12번과 13번 물음에 답하시오.



12.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금성의 위치가 ㉡일 때, 금성은 태양보다 (ⓐ)에 위치하지만,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 (ⓑ) 하늘에서 볼 수 있어. 그러므로 새벽에는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에, 초저녁에는 지평선 (ⓓ)에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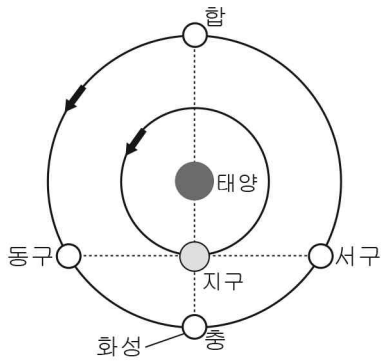
	ⓐ	ⓑ	ⓒ	ⓓ
①	동쪽	서쪽	위	위
②	동쪽	서쪽	아래	위
③	서쪽	동쪽	위	아래
④	서쪽	동쪽	아래	위
⑤	서쪽	동쪽	아래	아래

13.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금성의 이각이 ㉠에서 ㉡으로 변할수록 각거리는 커지며,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진다.
② 금성의 이각이 ㉡에서 ㉢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며, 점점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③ 금성의 이각이 ㉢에서 ㉣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며, 점점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금성의 이각이 ㉣에서 ㉤으로 변할수록 각거리는 작아지며, 관측자에게 보이는 형태가 점점 달라진다.
⑤ 금성의 이각이 ㉣에서 ㉤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며, 점점 초승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14. 윗글과 <보기>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구 공전 궤도보다 바깥쪽을 도는 천체를 외행성이라 하는데, 지구에서 관측하기 쉬운 외행성은 화성이 대표적이다. 화성, 지구, 태양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태양-지구-화성의 순으로 위치할 때를 '충'이라고 하며, 화성-태양-지구의 순으로 위치할 때를 '합'이라 부른다. 또한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90°로 놓이는 때를 '구'라고 하는데, 화성이 동쪽에 있으면 '동구', 서쪽에 있으면 '서구'로 구분한다. 또한 화성은 이각이 180°일 때 가장 밝게 보이며,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즉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더 크게 관측되지만, 멀수록 더 작게 관측된다.

①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크게, 화성은 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
②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합에서 가장 작게 관측된다.
③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화성은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
④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충에서 가장 작게 관측된다.
⑤ 금성은 외합 부근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구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다.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눈 덮인 밤길을 억구와 큰 키의 사내(형사)가 동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억구가 6·25 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득칠을 우연히 만나 술자리 끝에 그를 살해하고, 부친의 산소 곁에서 죽을 심산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임이 드러난다.

옆 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

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뭇가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 먼 곳에서 뚝 우지끈 소나뭇가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이때 억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 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놈을, 그 김득칠일 어제 죽였단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 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유. 자, 날 어떻게 하겠수?"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

그의 시선은 억구가 양복 윗주머니의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아까두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걱댔죠.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질 잡았것다? ㉡그래 벌초를 매년 해 왔다구? 아 고마워, 고마워…… 하고 말입네다. 헌데 그 득칠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쎄, 나두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칠일 죽였는지……."

여직 들어 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켜 보였다.

"바루 저 산에 가친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의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구 술을 한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두 눈이 퍽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루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릴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루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일 돌아감 거기가 바루 와야립니다. 가셔서 우선 구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우.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 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길 아래로 내려서서 억구 쪽으로 따라가며,

"노—형,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 깔려 있는 듯싶었다.

언 바짓가랑이를 데걱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진 그런 자세였다.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A] ———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넨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지레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토낄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아니 선생, 남을 불러 놓군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억구가 말했다.

———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큰 키의 사내가 한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 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똥한 양복 윗주머니에 삐죽하니 2홉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형,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이를 데걱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 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열여덟 개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핸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 든 채 멍청히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 잔기침을 몇 번 킁킁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한 개씩 피우라구요? 꼭, 한 개씩, 피, 우, 라, 구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눈 덮인 산 속, 아직 눈 조용히 비껴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 전상국, 「동행」 -

1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상황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②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③ 대화와 내적 독백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서술의 시점을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대비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16. <보기>와 [A]를 참고하여 '큰 키의 사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큰 키의 사내'는 학창 시절에 새끼 토끼를 잡게 된다. 생물 선생은 그 새끼 토끼를 다음날 해부하고 고기는 술안주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날 밤, 새끼 토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들던 어미 토끼의 눈과 끔찍하게 해부될 새끼 토끼를 떠올리던 '큰 키의 사내'는 고민 끝에 새끼 토끼를 구하러 가지만 생물 선생네 담을 넘지 못해 새끼 토끼를 구할 수 없었다.

① '억구'가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② '억구'를 '새끼 토끼'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과거 경험을 부정하고 있다.
④ '억구'의 처지가 '어미 토끼'를 닮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⑤ '어미 토끼'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지우지 못해 후회하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큰 키의 사내'가 범행을 털어놓는 '억구'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아버지의 산소 벌초를 매년 한 것에 대해 '억구'가 득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과거와 달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억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 아버지의 산소에 술을 올리고 그 옆에 눕겠다는 '억구'의 말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 미소가 번지는 표정을 통해 '큰 키의 사내'가 '억구'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만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동행」은 동일한 여정 속의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쟁이 남긴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과 우연히 그를 만나 눈길을 동행하게 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전쟁이 남긴 아픔을 치유하는 인간애를 보이고 있다.

① '억구'와 '큰 키의 사내'는 전쟁의 상흔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동일한 여정을 지니고 있군.
② '억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구장네 집을 알려 주는 모습에서 쫓기는 자로서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군.
③ '억구'가 자신의 범행을 '큰 키의 사내'에게 털어놓은 것은 밤길을 동행하며 느낀 인간적인 연민 때문이로군.
④ '큰 키의 사내'가 '억구'에게 담배를 하루에 한 개씩만 피우라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엿볼 수 있군.
⑤ '큰 키의 사내'를 뒤로하고 떠나가는 '억구'의 을씨년스러운 뒷모습에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업은 도임한 뒤로 군대의 형편을 살피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는데,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다시 돌아와 염탐했다. 이것을 안 경업은 크게 노하여 군대를 내어
"되놈들을 잡아들이라!"
외치니, 군사들이 호국 군대의 진을 무너뜨리고 남은 호병들을 잡아왔다. 경업이 호병들을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A] "내 몇 년 전 가달 왕에게 항복받고 너희 나라를 지켜 주었을 때, 너희는 은덕을 잊지 않겠다며 만세불망비도 세우지 않았더냐? 그걸 벌써 잊고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우리나라를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는 마땅히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다. 다만 너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돌려보내니, 빨리 돌아가 너희 땅을 지키고 다시 분수에 넘치는 짓은 생각도 하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앨 것이다."

경업이 포로들을 끌어 내치니, 호병들이 쥐 숨듯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대장과 군졸들에게 일의 전말을 보고했다. 이를 들은 호국 장수들이 크게 분개했다.

"임경업이 교묘한 말로 우리 호국을 욕되게 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내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의 수치를 씻으리라."

호국 장수는 곧바로 정예 병사 7천 명을 뽑아 조선으로 향했다. 군사들이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더니, 호국 장수가 강 건너 조선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조선국 의주 부윤 임경업은 들으라. 너는 한갓 어린아이로서 어찌 간사한 말로 병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느냐? 네가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막아 보아라. 죽기가 두렵거든

항복하여 목숨을 아끼거라."

이 말을 경업이 듣고 크게 분노해 급히 배를 띄워 물을 건넜다. 경업이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비껴들고 호국 진영에 달려들어 거칠 것 없이 좌우로 칼을 휘두르니, 적병들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떨어졌다. 호국 군사들이 감히 맞서지 못해 급히 달아나니, 이때 서로 짓밟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경업이 홀로 출전하여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다. 의주 군졸들이 장군의 용맹을 감탄해 서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압록강 가에는 적군의 시체가 흘러 산같이 쌓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적병이 돌아가 호국 왕에게 패한 까닭을 보고하니, 왕이 몹시 분개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원수 갚을 일을 의논했다. 경업이 의주 감영으로 돌아와 승전한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임금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 경업은 머지않아 호국이 다시 침범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

이때 호국 왕은 경업에게 패한 뒤로 분한 기분을 참지 못하더니, 다시 장수들을 모아 조선을 침공할 준비를 했다.

"여기서 의주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가?"

호왕의 말에 좌우에서 말했다.

"열하루 길입니다. 다만 국경의 한쪽은 갈대 수풀이요, 다른 한쪽은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강을 건너 기마군으로 승부하고자 하면 수만 군졸이 진을 칠 곳이 없고, 또 자칫 군사가 패하면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먼저 깬 뒤에야 군사를 내는 게 좋을까 하나이다."

장수들의 의논을 들은 호왕이 이를 옳게 여겨 용골대 장군을 선봉장으로 삼고 지시했다.

"너는 수만 명 군사를 거느려 배를 띄워라. 가만히 황해를 건너 조선을 치면 미처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한양을 급습하면 항복받기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하물며 이 일을 성공하면 당연히 경업도 사로잡지 않겠느냐?"

용골대가 명령을 받고 군사를 뽑아 훈련을 시작했다.

<중략>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얻은 나무 기둥들로 뗏목을 엮어 강화도로 침입했는데, 강화 유수 김경징은 술만 마시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호국군에 꼼짝없이 당했다.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포로로 잡은 용골대는 송파 들판에 진을 치고 큰 소리로,

"어서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가만 두지 않겠다."

라며 으름장을 부렸다.

이때 임금은 모든 대신과 병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에서 외로이 성을 지키면서 눈물만 비 오듯 흘릴 뿐이었다. 도원수 김자점은 달리 방법도 없이 성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호병들의 북소리에 놀라 진이 무너지며 군사들이 무수히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군사만 산성 밖에 남기고 [B] 산성 안으로 들어와 지켰지만, 군량미도 바닥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용골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가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여름 보리를 지어 먹고 있을 테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느냐? 어서 빨리 나와 항복하여라."

용골대가 산봉우리에 올라 산성을 굽어보며 외치는 소리가 산을 울리니, 임금이 듣고는 하늘을 보고 통곡하며 말했다.

"안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밖에는 강적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전하며, 또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임금이 대신들과 항복할 것을 의논하니, 한 신하가 말했다.

"대왕마마!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 다 적진에 계시니 나라에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항복하시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구하시며, 사직을 보전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한 신하가 앞에 나와 말했다.

"옛말에 일렀으되,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될 수 없다 했사오니,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욕을 당하리이까? 죽기를 무릅쓰고 성을 지키면 임경업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올라와 오랑캐를 물리치고 적장의 항복을 받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대왕마마께서는 자연히 욕을 면할 것입니다."

"경들은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라. 길이 막혀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 경업이 어찌 이 사정을 알겠는가? 지금 사정이 이렇듯 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입을 다물라."

임금이 이 말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했다.

- 작자 미상, 「임경업전」 -

19. 윗글의 공간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조선 → ㉡ 호국 → ㉢ 조선

① ㉠에서 임경업은 호국 장수들이 아군을 염탐한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한다.

② ㉠에서 임경업과 달리 조정의 신하들은 호국이 다시 침범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 않는다.

③ ㉡에서 호국 왕은 임경업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해 한양을 급습하는 계교를 꾸민다.

④ ㉢에서 신하들은 호국의 침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임경업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⑤ ㉢에서 임경업이 남한산성의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임금은 항복할 것을 결심한다.

20.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의 불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회유하고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③ [A]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의 행동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시험하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드러내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경업은 인조 때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장수로서 의주에 주둔하며 청의 주요한 공격로를 수비하였다. 그러나 현실보다 명분에 집착했던 조정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에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임경업전」은 이러한 임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좌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① 의주 부윤 임경업의 활약은 실존 인물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로군.
② 단숨에 호국 진영을 제압하는 임경업의 모습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려 하였군.
③ 임경업이 용골대의 침략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민중들이 안타까움을 느꼈겠군.
④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을 호국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인물로 형상화하여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군.
⑤ 조선과 호국에서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 데는 명분만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는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화장했네?
다림 왜, 보기 싫어요?
정원 아니.
다림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
다림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
다림 ○○월드 가면 걔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
정원 근데?
다림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 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 치는 모습.

㉣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 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드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 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 오승욱 · 허진호 · 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 하고 있다.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② ㉡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③ ㉢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④ ㉣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⑤ ㉤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24. S# 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정부 지출과 조세 등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활용한다.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들 수 있다. 두 학파의 입장 차이를 확장적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통화주의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 하는 화폐의 총액을 의미한다.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면 재정정책과 달리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경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케인스주의는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

고 보았다. 투기적 화폐 수요는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케인스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 등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가 소득의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 승수 효과와 ㉡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승수 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케인스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면 이자율이 오르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나 기업들의 소비나 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줄어들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화주의에서는 구축 효과에 의해 승수 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기대했던 경기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이 정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 총수요 :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것.

25.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②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정책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③ 투기적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④ 정부의 지출 증가가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 안정 정책은 무엇인가?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비해 더 큰 소득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위해 시중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③ ㉠과 달리 ㉡은 정부 지출이 정부의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④ ㉡과 달리 ㉠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⑤ ㉠과 ㉡은 모두 정부 지출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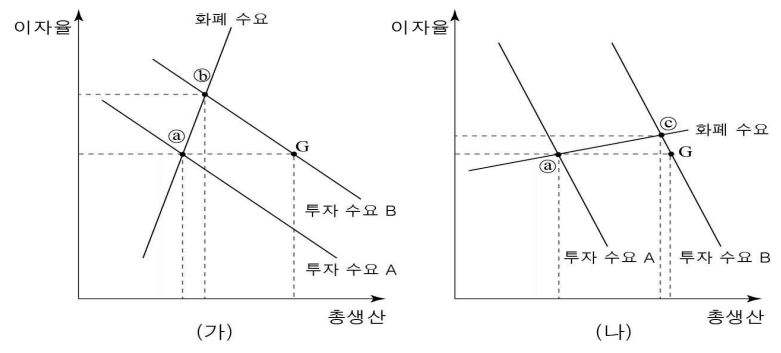
<보 기>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A)되어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시중 통화량이 (B)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 (C)이/가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D) 경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A	B	C	D
①	과열	감소	과열	올려
②	과열	증가	침체	내려
③	과열	감소	침체	올려
④	침체	감소	침체	올려
⑤	침체	증가	과열	내려

28. <보기>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는 확장적 재정정책 활용 이전의 상태를, ⓑ와 ⓒ는 확장적 재정정책 활용 이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G는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해 총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지점을 가정한 것이다.
※ 총생산의 증가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 가정한다.

① (가)는 (나)에 비해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가)는 '케인스주의'의 그래프이겠군.
② (가)는 (나)에 비해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가)는 '통화주의'의 그래프이겠군.
③ (나)는 (가)에 비해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보아, (나)는 '통화주의'의 그래프이겠군.
④ (나)는 (가)에 비해 국민 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나)는 '케인스주의'의 그래프이겠군.
⑤ (나)는 (가)에 비해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생산 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나)는 '케인스주의'의 그래프이겠군.

〔29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서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 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나)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수사학이 태동하였다. 음악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지만, 마테존에 와서는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음악수사학을 체계화한 마테존은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마테존은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었다.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이다. 그리고 장식 음형은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형이다. 마테존은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술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주가도 실제 연주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율 음형에는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인 '아나포라',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인 '영탄법', '멈춤' 등이 있다. 아나포라는 수사학에서의 두음(頭音) 반복의 원리를 음악에 적용하여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음형이다. 작곡가는 전달하려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음형을 ㉠ 쓴다. 영탄법은 느낌표로 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한다. 멈춤은 음을 짧게 끊어 갑작스럽게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음형으로, 영탄법과 함께 격한 감정을 표현한다.

장식 음형은 연주자가 실제 연주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다. 장식 음형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악센트',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트릴',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트레몰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마테존은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악센트를 중시하였다.

음악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마테존이 체계화한 음형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음악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음악수사학자들이 체계화한 음형은 오늘날까지 음악에 대한 상식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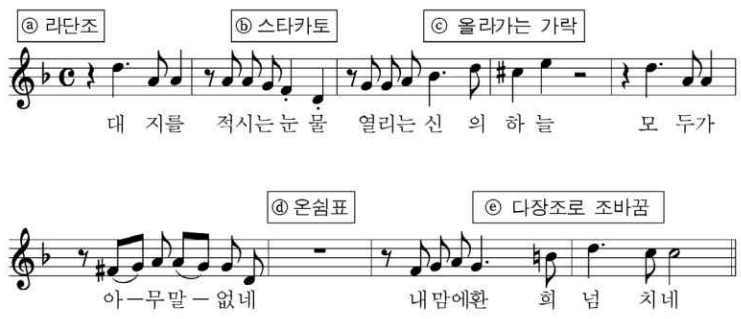
* 음형 : 연속한 몇 개의 음이 특징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양.

2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음악 이론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30.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 : 경건하고 웅장한 분위기 설정을 위한 것이겠군.
② ⓑ :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묘사한 것이겠군.
③ ⓒ : '하늘'이 높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겠군.
④ ⓓ : 말의 장단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⑤ ⓔ : 기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31. <보기>는 영희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독서 노트이다. 노트에 작성한 내용 중, (나)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보 기 >

〈마테존〉

-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①)
- 정식 음형보다는 선율 음형을 중시하였다. (②)
-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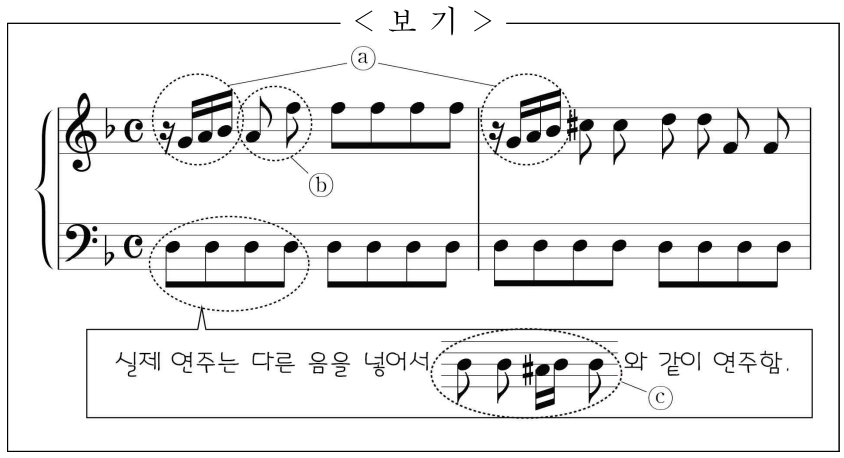
- 16세기 바로크 시대에는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④)
- 음악 수사학에서는 음형을 통해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⑤)

32.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바로크 시대의 기악은 악기가 발달하고 다양한 장르가 형성되면서 발전하였다.
② 정서론과 음형론은 성악을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나 점차 기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③ 부어마이스터는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음형론의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 주었다.
④ 마테존은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⑤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33. <보기>는 (나)의 음형을 활용하여 습작한 악보와 연주가의 메모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에는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여 감정을 강조하려는 작곡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
② ⓑ에서 음이 도약하는 것을 보니 가사를 붙인다면 감탄을 드러내는 표현이 적절하겠군.
③ ⓒ는 연주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장식 음형의 일종인 트레몰로를 사용한 것이군.
④ ⓐ는 단어 차원, ⓑ는 문장 차원에 근거한 음형이군.
⑤ ⓐ는 작곡 과정에서 고안되는 반면에 ⓒ는 실제 연주에서 구현되었어.

34. ㉠과 관련하여 <보기>의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야금을 (A) 시작하자, 그는 채로 장구를 (B) 시작했다.

	A	B
①	뜯기	치기
②	치기	켜기
③	타기	퉁기기
④	켜기	두드리기
⑤	퉁기기	타기

2022학년도 수능대비 Replay 문제 1회 정답지

1	①	13	⑤	25	①
2	②	14	③	26	④
3	①	15	③	27	①
4	⑤	16	②	28	④
5	⑤	17	②	29	③
6	①	18	④	30	④
7	⑤	19	④	31	②
8	①	20	⑤	32	④
9	③	21	⑤	33	③
10	②	22	②	34	①
11	⑤	23	①		
12	③	24	②		